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태도에 관한 연구: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하상근

국문요약

이 연구는 “지방의원들이 일련의 가치유형에 대해 태도 구성요소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Gortner(1994) 등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치·행정학자들의 가치유형 중 목표정향(개인적 목표-집단적 목표), 지향점(관계지향-과업지향), 리더십(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합리성(절차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 그리고 행정이념(경제적 효율성-사회적 민주성)을 토대로, 지방의원들의 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그리고 행위 의도적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정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지향점과 행정이념이고, 정서-행위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목표정향과 지향점이다. 그리고 인지-행위의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치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가치유형, 태도,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적 요소, 지방의원

I. 서론

1991년 기초의회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제도의 시행이 곧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내적인 발전과 공동체적 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들의 가치, 자질, 태도, 사명감 등은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역할, 기능,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 모두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도 정치인이고 보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이익집단 등에 얽매이게 되거나, 자신의 재선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지방의원들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말”

*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이양 교수(U.S.A: Affiliate Professor in HASKINS Lab)님께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남 의령군 김영곤 사무관(낙서면장, 행정학박사)님의 도움이 컸다.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 및 조언을 해 주신 사회자 및 여러 토론자님, 그리고 이 논문의 심사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원은 거짓말로 비화될 수 있고, 비화된 거짓말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 수 있다.

보통 인간은 특정 사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 제기는, 그러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 진위를 떠나 거짓말에 대한 의혹 자체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다는데 있는 것이다(황재원,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²⁾ 지방의원의 태도³⁾를 측정하고자 한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가치유형에 대해,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위 의도적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가치유형에 대해 태도의 구성요소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의 가치유형에 대해 태도의 구성요소(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위적 요소)별 빈도분석을 하여 그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태도의 각 구성요소(인지-정서, 정서-행위의도, 인지-행위의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Wilcoxon검정을 통해 파악한다. 셋째, 가치유형별 태도 구성 요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독립표본 Mann-Whitney U 검증 및 독립표본 Kruskal-Wallis H 검증을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상남도 각 시·군 기초의회의원이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2년 12월 중 18개 시·군 의회에서 무작위로 5부씩 표본을 추출하여 총 100부⁴⁾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최종 유효한 설문지는 82부이다.

II. 가치, 태도 그리고 태도의 일관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가치의 개념 및 유형화

우리는 가치(value)란 용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

- 1) 이때 “말”이라는 것은 정치인 자신의 ‘인지 차원’에 의한 말과 ‘정서 차원’에 의한 말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와 정서차원에서 “나는 이것을 좋아 한다” 등이다.
- 2) 개인 또는 집단은 다양한 인간, 물건, 아이디어와 행동에 관련된 일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는 현재의 상태와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태와 사건에도 부여되며, 이러한 가치는 상황이 어떻게 지각되는가, 무슨 결정이 내려지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취해지는가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나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속한 조직 및 집단생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Gortner, 1994).
- 3) 태도는 우리가 어떤 대상, 아이디어, 상황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느낌의 결합체이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황규대 외, 2007). 특정 인물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4) 통합 창원시는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였으므로 각 5부씩 총 15부를 배부하였다.

다. 이는 가치란 개념에 대해 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 경영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가치(value)는 문화적인 소산이며,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행동방향에 영향을 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Frankena(1967)에 의하면, 가치란 좁은 의미에서는 “좋은”, “바람직한”, 또는 “할 보람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옳음, 의무, 덕, 미, 진리, 그리고 성”을 가리킨다. Kluckhohn(1962)에 의하면,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또는 이용가능한 행위의 양태, 수단 및 목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Rokeach(1973)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특성의 궁극적 상태나 행동양식보다 더 선호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했다. Cooper(1982)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이라고 정의하였고, Gortner(1994)는 자극에 의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 결과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목표선택에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고 정의하였다(배병룡 외, 1997). 그리고 Allport(1960)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치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치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 내부의 심층에 속하는 심리적 성향으로, 상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거나, 또 무엇이 좋고 싫음을 명백하게 해주는 일반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상적인 원리이다(김준식 외, 2004).

이러한 가치는 문화, 환경, 개인의 정향은 물론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Kluckhohn & Strodtbeck(1961)은 ① 인간에 대한 견해, ② 자연과 인간의 관계, ③ 치중하는 시간의 차원, ④ 좋아하는 성격유형, ⑤ 이상시하는 인간관계로 유형화하였고, Allport & Vernon(1956)은 ① 이론적, ② 경제적, ③ 심미적, ④ 사회적, ⑤ 종교적, ⑥ 정치적인 가치로, Parsons(1973)는 ① 업적 가치, ② 헌신적 가치, ③ 화해적 가치, ④ 충족적 가치로, Morris(1973)는 ① 객관적 가치, ② 관념적 가치, ③ 행동적 가치로 유형화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학과 관련한 공직자 및 관료, 특히 지방의원의 가치와 관련해 볼 때 Worthley(1981)는 ① 능력, ② 전문성, ③ 능률성, ④ 구조, ⑤ 충성으로, Jefferson & Madison(1981)은 ① 반응성, ② 책임성, ③ 절차, ④ 대표성, ⑤ 공정성으로, Huddleston(1981)은 ① 정치 기반 윤리학(polity-based ethics), ② 국가 중심 윤리학(statist ethics), ③ 초월적 윤리관(transcendent ethics)으로 유형화 하였다. 특히 Gortner(1994)는 ① 민주적 가치, ② 경제적 가치, ③ 사회적 가치, ④ 관료적 가치, ⑤ 전문직업적 가치로 구분하면서, 미국 행정과 관련된 가치에서 민주주의 이론이 공무원 사회에 전반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의적 정부 개념에 부합되는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처방하였다. 한편 Buchanan & Millstone(1983)은 ① 행정적 합리성 가치, ② 민주적 도덕적 가치, ③ 공직자가 갖는 정치적 생존 가치로, 국내학자로 오석홍(1975)은 ① 합리성, ② 쇄신적 성향, ③ 성취적 지향으로, 박동서(1974)는 ① 성취의욕, ② 미래지향적, ③ 인간성, ④ 쇄신성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Gortner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정학자들의 가치유형을 저자가 재분류하여 ① 목표정향(개인적 목표 - 집단적 목표), ② 지향점(관계지향- 과업지향), ③ 리더십(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④ 합리성(절차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 ⑤ 행정이념(경제적 효율성-사회적

민주성)으로 유형화하였다.

2. 태도의 의의⁵⁾와 태도의 형성 및 일관성

1) 태도의 의의

모든 심리적, 사회적 현상과 관한 개념의 정의가 그렇듯이, 태도라는 심리적 현상 내지 속성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다. 이는 현상 자체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일한 현상이라도 이를 보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또한 태도의 어느 국면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속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배, 2000).

우선 태도를 어떤 사회적 대상물(social object, 예컨대 인간, 사물, 장소, 아이디어, 상황 등)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위한 인간의 심리적 경향 내지 준비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Warren(1934)은 태도를 “어떤 유형의 행동을 위한 준비성의 한 조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llport(1935)는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조직된 것으로서 이것에 관련된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Newcomb(1950)은 “동기유발을 위한 준비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정배, 2000).

둘째, 태도를 감정적 그리고 평가적 측면 내지 속성을 강조하는 정의가 있다. 예를 들어 Thurstone(1931)은 “태도란 한 심리적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태도의 감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정의는 근래에 와서 “태도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좋다 나쁘다)으로 반응하기 위한 선유경향(predisposition)”이라는 개념정의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란 어떤 주어진 대상물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양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존 요인”이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정배, 2000).

셋째, 일부 학자들은 태도가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Krueger와 Reckless(1933)는 “태도란 경험의 잔재로서 대상물에 대하여 특수한 양태로 반응토록 만들고 있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대상물(인간, 사물, 상황, 아이디어 등)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양태로 일관성있게 반응토록 만들고 있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차배근, 1992).

한 사람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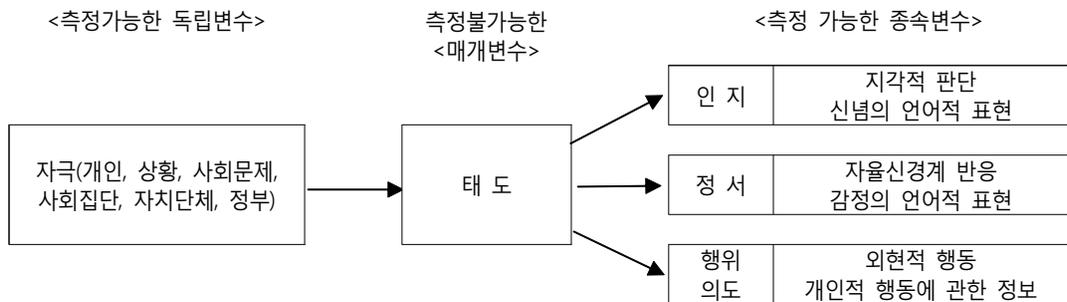
5) 태도는 일종의 가설적 개념이기 때문에 태도의 결과는 관측할 수 있지만 태도 그 자체는 관측하기가 어렵다. 즉 태도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태도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 연구에 있어서 측정이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준식, 2004). 따라서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태도는 어떠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가?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Fishbein(1975)의 고전적 정의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써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⁶⁾

Rosenberg(1976)와 Home(1985)은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최재완, 2006).

<그림 1> 태도의 구성요소



우선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신념적 요소, 정보적 요소, 사고적 요소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믿음이나 신념을 말한다. 그리고 인지적 요소는 지각적 판단이고 신념의 언어적 표현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의미한다.” “우리 시장은 행정학박사 출신이다” 등이 인지적 요소이다. 인지적 요소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처리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이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인지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감정적 요소, 평가적 요소 그리고 공감적, 신경적 반응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feelings)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방자치가 좋아”라든지 “나는 행정학박사 출신의 우리 시장이 좋아” 등이 정서적 요소이다. 정서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에 대한 반응(reaction)이기 때문에 인지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인지적 과정을 갖기 때문에 비록 같은 인지적 요소를 갖는다 해도 서로 상이한 정서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behavioral tendency(intention) component)는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행동하려는 의도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현적인 행위로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는 지방자

6) Conway & Feigert(1972)도, 태도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정치적 인물이나 쟁점과 같은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일명 태도의 ABC모형이라고도 함.

치가 뿌리내리도록 열심히 지방분권 운동을 할 거야”라든지 “나는 행정학박사 출신의 시장과 협력해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등이 행위경향(의도) 요소의 예이다.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인간의 행동방식은 태도의 행동적 요소를 검토해 봄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인지적 및 정서적 요소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특정한 믿음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해관계와 상황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의 행위 의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행정학박사 출신인 상관에 대해 인지적·정서적 요소를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A는 그 상관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반면 B는 상관의 소질을 배우고 그 자신도 훌륭한 상관이 되기 위하여 그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태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뒤엉켜서 형성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개인의 태도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와 개인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행위패턴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태도의 각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M. Fishbein과 I. Ajzen 등 인지론적 관점을 취하는 일부 학자들은 태도의 개념을 보다 쉽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인정하면서도 태도를 정서적 요소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하고 있다. 즉 이들은 정서적 요소만을 태도로 간주하고 인지적 요소는 태도의 선행요소로, 행동 의도는 결과로 취급한다(황규대 외, 1999).

2) 태도의 형성 및 태도의 일관성

(1) 태도의 형성

태도가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은 다양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의 문화나 규범, 관습 등 다양한 요인들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태도는 개인적 경험, 연상, 그리고 사회적 학습 등을 통해 주로 형성된다.

① 개인적 경험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을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을 통해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태도 대상의 일정한 특성 혹은 속성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의 일부가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는 인지적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황규대, 1999).

② 연상(association)

개인은 연상을 통해 새로운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즉 새로운 대상에 대해 태도를 형성할 때 기존의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의 일부 혹은 전체의 연상을 통해 새로운 대상으로 이전시켜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에 대해 진실하지 않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면, 다른 정치인을 만날 때 역시 그도 진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연상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다른 대상으로 이전하는데 활용되는 태도 형성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상을 통해 형성된 태도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형성된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황규대, 1999).

③ 사회적 학습

사회적 학습은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태도 형성의 원천이다.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과 연상을 통하지 않아도 특정 대상에 대해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학습, 즉 어떤 태도 대상에 대해 이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하여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황규대, 1999). 사회학습의 원리는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처럼, 태도도 모방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영화나 TV에서 보상받고 미화되는 폭력을 보고 폭력의 행사를 대리 학습하기도 한다. 부모가 취한 사회봉사 행위가 부모에게 주는 내적 보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사회봉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한규석, 2009).

(2) 태도의 일관성

이미 형성된 태도에 대해 사람들은 생활 속의 여러 요소들 간에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태도는 세 가지 구성요소간의 일관성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일관성 이론⁷⁾에 의하면, 개인은 대체로 세 가지의 다양한 태도 요소를 일치시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반응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누가 부정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인지), 그가 어쩐지 싫어지고(정서), 좀처럼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행위 의도). 따라서 이들 세 요소 간에 일관성이 있게 되면 태도는 당연히 강해진다(김준식 외, 2004).

① 인지-정서 일관성 이론

사람들은 태도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적 평가와 인지적 요소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으면 인지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며, 인지요소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면 정서적 평가도 긍정적이 된다. Rosenberg(1960)는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흑인 및 인종문제 등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다음, 이들에게 최면을 건 상태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와는 반대되는 정서를 유도하였다. 즉 흑인에게 혐오적인 학생에게는 흑인을 긍정적으로 느끼게끔 최면을 걸었다. 최면을 푼 상태에서 이들에게 현재 느끼는 인종문제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최면상태의 정서와 합치되는 인지요소들을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면 중에 아무런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면에 의해 야기된 정서와 기존의 인지와의 불일치가 정서에

7) 개인은 정서, 인지, 행동 등의 태도 구성요소들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태도 구성요소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 즉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치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태도는 충분한 인지적 근거 없이 이념 또는 소속집단의 귀속의식 때문에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태도에 맞는 인지 요소들이 추후에 지원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 연구는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한규석, 2009).

② 인지-행동 일관성 이론(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이란, 태도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 사이의 불일치나 모순이 생기는 상황으로⁸⁾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러한 불일치는 불안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한 불일치 상태를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부조화 상태는 일정한 형태의 일관성이 성취되었을 때만 해소 가능한 것이다(이수도, 2000). 인지부조화 이론을 주창한 L. Festinger(1957)에 의하면, 인간은 비일관적인 부조화 상태를 싫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 간에 부조화가 발생하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태도 변화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말과 행위 사이의 불일치, 다양한 태도 간의 불일치를 느낄 때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불쾌한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부조화를 초래하는 태도 중 어느 하나 혹은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압력이 생긴다. 결국 인지부조화 이론은 인간이 부조화를 인식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로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있고 실제 피우고 있을 때 인지부조화가 존재하여 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규대 외, 1999).

③ 정서-행동 일관성 이론(기대-가치 이론)

이 이론은 인간을 적극적이고 계산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 계산되어진 유인가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개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행동하려고 할 것이며, 특히 손익계산에 의한 유인가 제공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1993년 공직자 사유재산 등록법의 제정을 앞두고 그 법의 적용대상자들은 법의 시행이 가져올 과장-부정축재, 부동산 투기, 뇌물성 재산 등의 노출 및 사퇴압력 등으로 인해 손익계산에 의한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반대하는 행위의도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유인가적 접근 혹은 손익계산에 의한 태도 변화라고도 하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기대-가치 이론(Edwards, 1954)이다.

3.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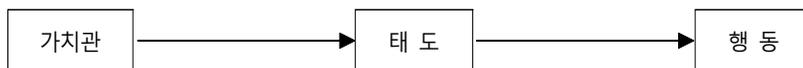
가치는 일반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되고, 태도는 행동의 심리적 요인임과 동시에 행동의 기초로서,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태도는 가끔 인지부조화로 인하여 행동과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고영희(1987) 등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태도는 행동과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려

8) L. Festinger(1957)에 의하면, 인지부조화는 태도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 사이의 불일치나 모순이 생기는 상황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는 특징적인 경향을 가졌다고 강조한다.

〈그림 2〉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의 관계



(1) 가치와 태도

가치는 태도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치와 태도는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즉 내면화된 가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의 행동지침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태도형성에 선행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직장에서 승진에 높은 가치를 두었을 때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어떤 공무원은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었다면 부담 없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2) 태도와 행동⁹⁾

인간이 환경적인 현상을 지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이다. 태도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의 마음속에 형성된 심리적 준비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의원의 태도는 그 의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이나 지방의원의 재선과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심이 높으면, 이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4. 지방의원의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태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195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파에 의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태도에 대한 개념으로 태도의 구성요소(인지·정서·행동)를 강조해 오고 있다(Krech & Crutchfield, 1946; Allport, 1935; Beck, 1977; McGuire, 1977; Rokeach, 1974; 소순창, 1999). 하지만 행정학(정치학 포함)분야에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는 Almond와 Verba(1963) 이후 Gamson(1968), 그리고 Paige(1971)에 의해 체계화하였다. 특히 알몬드와 버바의 ‘시민문화(civic culture)’ 개념에 큰 영향을 받은 정치문화를 정치대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적 정향, 정서적 정향, 평가적 정향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정치문화(정치적 태도나 가치, 감정, 인식, 평가와 같은 정치문화적 요인 및 체제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닌 심리적 요인)는 정치제도

9)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논의는 합리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국내외연구로 Davies, Foxall, and Pallister(2002), 김은희(2007), 이경희·최영희(2004)와 이기식(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목진휴, 2011).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행위라는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등이 있다(이재철, 2007).

먼저 인지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신념으로서 정치적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안형기·최병대·강인호, 1999; Miller & Levitin, 1976; Conway, 1985; Hughes & Conway, 1997; Timpone, 1998; Verba, Scholzman & Brady, 1995; 이현우, 2003)와, 정서적 요소와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Campbell et al., 1960; Niemi & Weisbert, 1993; 황아란, 1998), 그리고 평가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고 있다는 연구(김도중·김형준, 2000; 유재일, 2006) 등이 있다.

그 외 정치적 요소가 투표행위에 반영된 경우, 투표행위에서 어떤 특정한 후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투표)는 인지적 혹은 행위요소적 정향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정서적인 정향에 기인하고 있다는 연구(박병철, 2006), 언론매체의 이용패턴과 다양한 차원에서 언론에 대해 수용자들이 가지는 태도는 그들의 정치 행태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김민하 외, 2008) 등이 있다.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1. 가치유형별 변수의 설정 및 변수목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는 Gortner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정학자들의 가치유형을 재분류하면서, 저자가 평소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즉 ① 목표정향(개인적 목표 - 집단적 목표), ② 지향점(관계지향- 과업지향), ③ 리더십(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④ 합리성(절차적 합리성-실질적 합리성), ⑤ 행정이념(경제적 효율성-사회적 민주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중심으로 지방의원들의 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그리고 행위적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1〉 가치 변수목록

가치유형	지방의원의 태도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위의도)별 측정						
목표정향	개인적 목표			↔	집단적 목표		
지향점	관계지향			↔	과업지향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행정이념	경제적 효율성			↔	사회적 민주성		
측정방법 Likert 7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중간은 4점이고 왼쪽으로 최저 1점, 오른쪽으로 최고 7점

그리고 다섯 가지 가치 변수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인지적 요소는 “규범적으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법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질문하였고, 정서적 요소는 “법적 원칙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개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행위적 요소는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 행동은 어느 것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실제 행위의도)”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측정방법으로는 각 가치변수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중간을 중심으로 좌우(1점에서 7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조사방법 및 가치 변수별 개념화

1) 조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당선된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전체 259명이며, 이 중 비례대표는 33명)이다.

〈표 2〉 경상남도 기초의원 정당별 의원현황

선거별	계	정당별 의원현황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무소속
지역구	226	136	12	20	4	0	3	51
비례대표	33	22	5	5	0	1	0	0

조사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각 5명씩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표본조사(총 100부)를 시행하였다. 이 중 유효한 설문지는 82부이며,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가치 변수별 개념화

Gortner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행정학자들의 가치유형과 저자가 지방의원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접목하여 가치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목표정향 변수이다. 이 변수는 지방의원의 역할 및 기능의 차원에서 볼 때 선거 공약의 실현이나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목표, 즉 개인적 신념이나 소신을 우선시 할 수도 있고, 반면 지역 및 집단적 요구나 목표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향점 변수이다. 이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과업(업무) 자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공식적인 상호관계 및 신뢰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 중시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특히 한국인의 경우 후자보다는 전자를 더 중시하는 게 사실이다. 사회가 합리화되고 사회가 분화될수록 후자의 문화가 더 강할 것이다.

셋째, 리더십과 관련된 가치 변수이다. Bass(1985)에 의하면 거래적 리더십은 현실적인 안정 지

향의 리더십으로써 리더의 요구에 부하가 순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환과정을 포함하지만, 부하들의 과업목표에 대한 열의와 몰입까지는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전통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 및 이상 지향의 리더십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개인적 차원에서 부하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부하에게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및 행정문화를 살펴보면 거래적 리더십을 중시해 왔음에 반해, 정부개혁의 차원에 따른 현실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넷째, 합리성과 관련된 가치 변수로써, Simon(1978)은 목표·수단관계와 인간의 인지능력에 중점을 두고 절차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다. 절차적 합리성은 적법한 과정 및 절차중심의 합리성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이나 그 한계에 비추어 불확실성과 인지상의 복잡성을 극복하는데 적절한 효과적인 수단·절차를 선택·활용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며, 합리성을 사고의 생산 내지 과정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실질적 합리성은 적절한 산출 및 결과 중심의 합리성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우리나라 정치·행정문화와 관련하여 볼 때 최근까지는 실질적 합리성을 강조해왔으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해 앞으로의 정치문화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념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민주성으로 유형화하였다.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적(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며,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에서만 파악한 개념이다. 반면에 사회적 민주성은 정신가치를 중시하며 행정이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대응성 있는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그리고 일부 특수 계층의 행정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개발 연대이후 최근 권위주의 정부까지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민주성이 더 중요한 행정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볼 때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IV.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석

1. 표본의 특성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에 빈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특성

요 인	범 주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소속의회	시 의회	21	25.6
	군 의회	61	74.4
	계	82	100.0
경 력	초 선	56	68.3
	재 선	16	19.5
	3선 이상	10	12.2
	계	82	100.0
연 령	40대	12	14.6
	50대	70	85.4
	계	82	100.0
성 별	남 자	71	86.6
	여 자	11	13.4
	계	82	100.0
선거구	지역구	71	86.6
	비례대표	11	13.4
	계	82	100.0
정당소속여부	정당소속	73	89.0
	무소속	9	11.0
	계	82	100.0

우선 응답대상자 기초의원 중 시(市)의회 소속 의원이 전체 82명 중 21명으로 25.6%를 차지하고 있고, 군(郡)의회 소속 의원이 전체 중 61명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어 군(郡)의원이 전체 응답자 중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을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전체 82명 중 56명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고, 재선 및 3선 이상이 각각 16명(19.5%)과 10명(12.2%)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중 70명으로 85.4%를 차지하고 있고, 40대가 12명으로 14.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의원이 71명으로 전체 중 86.6%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 의원은 11명으로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이 71명으로 전체 중 86.6%를 차지하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11명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 소속여부를 살펴보면, 정당소속이 전체 82명 중 73명으로 89.0%를 차지하고 있고, 무소속이 9명으로 1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변수에 대한 태도의 응답결과

1) 가치유형별 변수에 대한 태도 구성요소별 빈도분석

여기에서는 가치유형별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한¹⁰⁾ 결과가 다음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가치유형별 태도(인지, 정서, 행위의도)별 응답분포(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태도	목표정향	개인 목표	(중 간)	집단 목표	무응답	합 계
태도	인지	38(46.3)	10(12.2)	31(37.8)	3(3.7)	82(100.0)
	정서	43(52.4)	9(11.0)	27(32.9)	3(3.7)	82(100.0)
	행위의도	31(37.8)	7(8.5)	41(50.0)	3(3.7)	82(100.0)
태도	지향점	관계지향	(중 간)	과업지향	무응답	합 계
태도	인지	20(24.4)	11(13.4)	48(58.5)	3(3.7)	82(100.0)
	정서	35(42.7)	10(12.2)	33(40.2)	4(4.9)	82(100.0)
	행위의도	22(26.8)	13(15.9)	44(53.7)	3(3.7)	82(100.0)
태도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중 간)	변혁적 리더십	무응답	합 계
태도	인지	31(37.8)	8(9.8)	40(48.8)	3(3.7)	82(100.0)
	정서	29(35.4)	12(14.6)	38(46.3)	3(3.7)	82(100.0)
	행위의도	33(40.2)	7(8.5)	38(46.3)	4(4.9)	82(100.0)
태도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중 간)	실질적 합리성	무응답	합 계
태도	인지	47(57.3)	9(11.0)	23(28.0)	3(3.7)	82(100.0)
	정서	41(50.0)	11(13.4)	27(32.9)	3(3.7)	82(100.0)
	행위의도	41(50.0)	9(11.0)	29(35.4)	3(3.7)	82(100.0)
태도	행정이념	경제적 효율성	(중 간)	사회적 민주성	무응답	합 계
태도	인지	30(36.6)	16(19.5)	33(40.2)	3(3.7)	82(100.0)
	정서	25(30.5)	13(15.9)	40(48.8)	4(4.9)	82(100.0)
	행위의도	29(35.4)	15(18.3)	35(42.7)	3(3.7)	82(100.0)

주1) <표 1>에 제시된 가치 변수에 따라 태도의 구성요소별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중간(4점)을 중심으로 좌측응답(1점-3점)과 우측(5점-7점)응답을 각각 합산한 응답분포임.

이를 살펴보면, 우선 목표정향에서 볼 때, 인지와 정서에서는 전체 82명 중 각각 38명(46.3%), 43명(52.4%)이 집단적 목표보다는 개인적 목표에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위의도에서는 오히려 집단적 목표에 41명(50.0%)이 응답함으로써 인지·정서와 행위의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향점 변수에서 인지와 행위의도에서는 전체 중 각각 48명(58.5%)과 44(53.7%)이 과업지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서에서는 관계지향에 35명(42.7%), 과업지향에 33명(40.2%)이 응답함으로써 비슷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중간(4점)을 중심으로 좌측 응답(1점부터 3점까지 합산)과 우측 응답(5점부터 7점까지 합산)으로 이원화함.

다음으로 리더십에서는 인지·정서·행위의도 모두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에 더 많은 응답 - 각각 40명(48.8%), 38명(46.3%), 38명(46.3%) -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정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가 각각 약 10% 정도이나, 행위의도에서는 약 6%의 차이만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합리성에서는 인지·정서·행위의도 등 태도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절차적 합리성에 각각 47명(57.3%), 40명(50.0%), 그리고 40명(50.0%)이 응답함으로써, 실질적 합리성에 비해 절차적 합리성에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이념에서는 인지·정서·행위의도 모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민주성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인지는 3.6%, 정서는 18.3%, 그리고 행위의도는 7.3%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변수의 중앙경향 값

지방의원의 가치유형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위의도)별 중앙경향값을 구하였다. 그런데 각 가치유형에 따른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해 하나의 서열변수(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중앙경향 값으로 중위수를 구해야 하나 보다 정확한 차이를 구하고자 편이상 평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변수의 중앙경향 값(산술평균)1)2)

가치유형	태도 구성요소			
	변 수	인 지	정 서	행위의도
목표정향3)	개인목표 - 집단목표	3.72	3.44	4.08
지향점4)	관계지향 - 과업지향	4.43	3.95	4.43
리더십5)	거래적 리더십 - 변혁적 리더십	4.24	4.18	4.26
합리성6)	절차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3.35	3.57	3.68
행정이념7)	경제적 효율성 - 사회적 민주성	4.11	4.33	4.15

- 주 1) 리커트 7점 척도(중간 4점, 좌측 변수 최소 1점, 우측 변수 최대 7점)
- 2) 중앙경향 값으로 데이터의 성격상 중위수가 옳으나, 편이상 평균값을 제시함.
- 3) 개인적 신념(소신) vs. 집단적 요구(목표)
- 4) 비공식적인 상호관계 및 신뢰 중시 vs.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 중시
- 5) 안정(현실) 지향의 리더십 vs. 변화(이상) 지향의 리더십
- 6) 적법한 과정 및 절차중심 vs. 적절한 산출 및 결과 중심
- 7) 물질가치가 중요 vs. 정신가치가 중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인 신념이나 소신과 집단적인 요구나 목표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대한 목표정향 가치를 살펴보면, 중간값(4점)을 중심으로 인지는 3.72, 정서는 3.44, 그리고 행위 의도는 4.08로 나타났다. 즉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신념 및 감정적으로는 개인목표를 강조하는 듯하나, 실제 행위 의도는 개인목표와 집단목표의 중간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향점으로는 인지 4.43, 정서 3.95, 그리고 행위 의도 4.43으로, 인지와 행위 의도는 약간 과업지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서는 중간값에 가깝게 나타났다. 즉 지방의원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인간관계 보다는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리더십에서 인지·정서·행위 의도가 각각 4.24, 4.18, 그리고 4.26으로, 모두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안정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화 및 이상을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다소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합리성에서는 인지 3.35, 정서 3.57, 그리고 행위 의도 3.68로 나타나, 모두 실질적 합리성 보다는 절차적 합리성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산출 및 결과 중심보다는 적법한 과정 및 절차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호감이 가며, 실제 그렇게 행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념은 인지 4.11, 정서 4.33, 그리고 행위 의도 4.15로, 모두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다소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3.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태도 구성요소별 차이 검증

다음은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로 태도의 구성요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증 중 Wilcoxon 검증을 하여 다음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각 가치유형별로 인지, 정서, 그리고 행위 의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의원들이 다섯 가지의 가치유형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것과,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 행위 하려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말(인지 차원 및 정서 차원)과 행동(실제 행위 의도)¹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다.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항만 살펴보면, 우선 인지-정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지향점 변수(유의수준 5%)와 행정이념 변수(유의수준 10%)이다. 이를 <표 5>에 비추어 볼 때, 지향점 변수는 지방의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중간 내지 약간의 비공식적인 상호관계 및 신뢰를 선호하고 있는 것(3.9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민주성 사이에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여기에서의 ‘행동’은 외관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의 구성요소로서의 ‘행위 의도적 요소’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른 것이지만, 외관상의 ‘행동’은 태도상의 ‘실제 행위 의도’의 결과로써 동일하게 간주하고자 한다.

<표 6> 지방의원의 가치유형에 대한 태도 구성요소별 차이검증(Wilcoxon 검증)

가치유형 \ 태도	인지-정서	정서-행위의도	인지-행위의도
목표정향	.208	.003**	.112
지향점	.022**	.063*	.904
리더십	.842	1.000	.853
합리성	.216	.601	.114
행정이념	.081*	.300	.729

* p<0.1 ** p<0.05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인지-정서상의 차이는, 사람들의 각자 다른 인지적 과정으로 인해 비록 같은 인지적 요소를 갖는다 해도 서로 상이한 정서적 요소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¹²⁾

다음으로 정서-행위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목표정향(유의수준 5%)과 지향점(유의수준 10%)이다. 즉 목표정향과 관련하여 정서상으로는 개인목표를 추구하고 싶지만, 실제 행동은 집단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재선가능성이나 다른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향점은 정서상으로는 비공식적인 상호관계 및 신뢰와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의 균형점을 지지하는데, 실제 행위의도는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 등 과업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도의 일관성 이론에서 정서-행동 일관성 이론인 기대-가치 이론에서 제시된 것처럼, 개인은 과거 경험보다는 현재 계산되어진 유인가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는 손익계산에 의한 태도임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원들 선호에 의한 말(표현)과 실제 행위의도(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지-행위의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치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 및 사고와 실제 행위의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통 지방의원들의 말이 자신의 정보(신념)에 의한 말(표현)과 실제 행위의도(행동) 사이에 차이가 없는,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4. 가치유형별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차이검증

여기에서는 가치유형별(목표정향, 지향점, 리더십, 합리성, 행정이념) 태도의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위의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소속 의회, 경력, 연령, 성별, 선거구, 당 소속)들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립표본 Mann-Whitney U 검증과 독립표본 Kruskal-Wallis H 검증을 하고, 이를 순위변수를 사용한 사후검증(Scheffé test using ranks)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¹³⁾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만을 다음의 <표 7>에 제시하였다.

12) 지방의원의 인지-정서상의 차이는 일관성 이론 중 인지-정서 일관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은 지향점 변수와 행정이념 변수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가치유형별 태도 구성요소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차이검증

가치유형, 태도, 요인, 분류			통계량	평균(n)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
목표 정향	인 지	경 력	초 선	38.86(53)	22.13	6.140	.003**
			재 선1) 3선 이상2)	53.66(16) 24.20(10)	21.57 14.52		
	정 서	경 력	초 선1)	36.42(53)	22.51	2.958	.012**
			재 선2) 3선 이상	51.72(16) 40.20(10)	23.66 15.58		
지향점	인 지	당소속	정당소속 무소속	41.98(72) 19.64(7)	21.79 18.22	2.621	.011**
	정 서	연 령	40대	25.41(11)	16.25	-2.324	.023**
			50대	41.81(67)	22.41		
행위의도	연 령	40대 50대	26.86(11) 42.13(68)	22.29 22.02	-2.129	.036**	
리더십	행위의도	소속 의회	시의회 군의회	28.45(19) 43.06(59)	22.84 20.98	-2.584	.012**
		당소속	정당소속 무소속	40.90(71) 25.29(7)	22.21 17.92		
합리성	정 서	연 령	40대 50대	24.91(11) 42.44(68)	16.12 22.70	-3.138	.006**
행정 이념	행위의도	경 력	초 선	40.65(53)	22.31	3.266	.044**
			재 선1) 3선 이상2)	47.28(16) 24.90(10)	22.52 18.75		
		성 별	남 자 여 자	38.34(69) 51.45(10)	22.82 17.98	-1.737	.086*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38.34(69) 51.45(10)	22.82 17.98	-1.737	.086*	

주) 1)과 2)는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법을 사용한 결과 차이가 있는 변수임.

* p<0.1 ** p<0.05

1) 목표정향

목표정향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유의수준 5%에서 경력과 당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의원의 경력(초선, 재선, 3선 이상) 및 당 소속(당 소속 혹은 무소속)에 따라 목표정향에 대한 인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위변수를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목표정향에 대한 인지상의 경력에는 재선의원과 3선 이상 의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균값을 비교해볼 때 재선은 53.66, 3선 이상은 24.2로써, 상대적으로 재선의원이 집단목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3선 이상 의원은 개인목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선의원일 경우 아무래도 정당공천이나 유권자들을 많이 의식해야 함을 인식할 것이고,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초선이나 재선 때에 비해 소속정당이나 유권

13) 이는 태도의 구성요소별 측정은 서열변수로 측정되어 사후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열변수를 순위변수로 변환하여 이를 분산분석 및 T-검증을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들 보다는 개인적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당 소속은 평균값을 미루어볼 때 정당소속 의원은 집단목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은 개인목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당연히 정당소속 의원은 정당 등에서 요구되는 집단목표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함에 비해, 무소속 의원은 그럴 필요 없이 개인적인 소신이 더 중요할 것이라 인식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정향에 대한 정서적 요소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목표정향에 대한 정서상의 경력에서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초선의원(36.42)은 상대적으로 개인목표를 선호하고 있으며 재선의원(51.72)은 집단목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선의원은 처음 의원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야심차게 개인적인 소신을 더 선호할 것이고, 재선의원의 경우 재선된 이유 등을 미루어 볼 때 지역적 요구나 목표야말로 정치생명을 이끌어 준 은인으로 생각하여 이를 더 선호할 것이다.

2) 지향점

다음으로 지향점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5%에서 당 소속에 따른 인지적 요소가, 연령에 따른 정서적 요소가, 그리고 연령에 따른 행위 의도적 요소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 소속 여부에 따라 믿음이나 신념의 차이, 연령에 따라 개인적 선호도의 차이, 그리고 연령에 따라 실제 행위 의도 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이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정당소속 의원이 무소속 의원에 비해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을 강조하는 과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은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정당소속 의원들은 자신이 맡은바 공식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을 반해(정당구성원으로서의 역할분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무소속 의원은 업무보다는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은, 개인의 소속감의 부재에 따른 경향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정서적 요소에 대해 평균값을 살펴보면, 40대 의원이 50대 의원에 비해 공식적인 업무나 규칙보다는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 의원일 경우 아무래도 정치인으로서 초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정당공천 혹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 치중한 듯하다.

3)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는 행위 의도 면에서 유의수준 5%수준에서 소속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유의수준 10%에서 당 소속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시(市)의원이 보다 안정적인 현실지향의 리더십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고(거래적 리더십), 군(郡)의원의 경우 변화 및 이상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시골지역이라는 환경과 관련되어 나타난 인간정서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즉 도시지역 사람들이 시

골지역 사람들에 비해 현실적인 삭막함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리고 정당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에 비해 변화지향의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들은 현실적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정당의 체계화된 조직화로 인해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된 경우이고, 무소속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정치활동의 한계로 인해 보다 현실적인 리더십을 펼치려 할 것이다.

4) 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수준 5%수준에서 정서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균을 기준해서 살펴보면, 40대 의원이 50대 의원에 비해 적법한 과정 및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50대 의원들은 적절한 산출 및 결과를 중시하는 실질적 합리성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젊은 40대 의원들이 50대 의원에 비해, 당연히 민주주적인 절차를 강조할 것으로 추론된다.

5) 행정이념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경력은 유의수준 5%에서, 그리고 성별과 선거구는 각각 유의수준 10%에서 행위 의도적 요소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력에 대해 순위 변수를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행정이념에 대한 행위 의도상의 경력에 재선의원과 3선 이상 의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평균값을 비교해볼 때 재선은 47.28, 3선 이상은 24.90으로써, 재선의원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민주성인 정신가치를 실제 지향하려고 하고 있으며, 3선 이상의 의원은 물질가치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더 지향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재선의원이 진보적인 성향으로써 물질적 성장보다는 정신적인 분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 의도는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성별은 평균값을 미루어볼 때 남자의원들이 여자의원들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있고, 반면 여자의원들은 사회적 민주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여자의원들이 남자의원들 보다 시대적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며,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는 지역구 출신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비례대표 출신의원은 사회적 민주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 출신의원이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V.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지금까지 다섯 가지 가치유형(목표정향, 지향점, 리더십, 합리성, 행정이념)에 대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태도를 구성요소들로 구분(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그리고 행위 의도적 요소)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로 태도의 구성요소인 인지, 정서, 그리고 행위 의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가치유형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것과, 현재 좋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 행위 하려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① 인지-정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지향점과 행정이념이다. 즉 지향점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민주성 사이에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서-행위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치변수로는 목표정향과 지향점이다. 즉 목표정향과 관련하여 정서상으로는 개인목표를 추구하고 싶지만, 실제 행동은 집단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향점 변수는 정서상으로는 비공식적인 상호관계와 공식적인 업무의 균형점을 지지하는데, 실제 행위의도는 공식적인 업무 등 과업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원의 말이 정치인의 선호에 의한 표현(말)일 경우, 정치인의 행위의도(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인지-행위의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치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알고 있는 신념 및 사고와 실제 행위의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자신의 정보나 신념에 의한 말(표현)일 경우 실제 행위의도(행동) 사이에 차이가 없는,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2) 다음은 가치유형별 태도의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위의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소속 의회, 경력, 연령, 성별, 선거구, 당 소속)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① 목표정향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지방의원의 경력과 당 소속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경력의 경우 순위변수를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재선의원은 집단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3선 이상 의원은 개인목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 소속은 정당소속 의원이 집단목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무소속 의원은 개인목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목표정향에 대한 정서적 요소는 경력에 따라 초선의원은 개인목표를 선호하고 있고, 재선의원은 집단목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지향점에 대해서는 당 소속에 따른 인지적 요소, 연령에 따른 정서적 요소, 그리고 연령에 따른 행위 의도적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당소속 의원은 무소속 의원에 비해 공식적인 업무를 지향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은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40대 의원이 50대 의원에 비해 공식적인 업무보다는 비공식적인 상호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었다.

③ 리더십에 대해서는 행위 의도 면에서 소속의회와 당 소속 여부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시(市)의원은 거래적 리더십을, 군(郡)의원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당소속 의원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무소속 의원들은 거래적 리더십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④ 합리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정서적 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40대 의원이 절차적 합리성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50대 의원들은 실질적 합리성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경력, 성별, 그리고 선거구에 대해 행위 의도적 요소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경력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재선의원은 사회적 민주성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고, 3선 이상의 의원은 경제적 효율성을 더 지향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의원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여자의원들은 사회적 민주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거구는 지역구 출신의원이 경제적 효율성을, 비례대표 출신의원은 사회적 민주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우리는 행정학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 분야(심리학 분야를 제외한)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태도척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방식(Thurstone방식, Likert방식 등)을 사용하여 태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태도측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대부분의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태도의 어떤 측면을 묻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인지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정서 및 감정 상태에 대해 묻는 건지, 아니면 행동하려는 하는 행위의도를 묻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태도의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위의도)를 구분하여 지방의원들의 태도를 측정하였고,¹⁴⁾ 그 구성요소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치유형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혹은 인지적, 정서적, 행위 의도적 요소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정치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한계이고,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14) 이 연구는 지방의원의 가치유형별 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태도의 구성요소(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별로 구분하여 태도측정을 한 경험적 연구인데, 행정학 분야에서는 최초의 연구이다.

참고문헌

- 고영희·이지영·홍기원. (1987).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성원사.
- 김도중·김형준.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 김민하·신윤경. (2008). 언론매체의 이용패턴과 언론에 대한 태도가 수용자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6권 제1호.
- 김영근. (2009). 「지방공무원의 가치관과 선호정책유형의 상관성」.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배.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식·박민생·안윤중·차대운·허갑수. (2004). 「조직행동관리」. 도서출판 대명.
- 목진휴. (2011). 정책문제의 특성과 공직자의 정책태도.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3호.
- 박병철. (2006). 부산·울산·경남지역 빈곤층의 정치행태와 투표행태. 「21세기 한국정치학보」. 제16권 제2호.
- 배병룡·김정남·배석원. (1997).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아산재단 연구보고서제 32집. 집문당.
- 소순창(1999), 지방의원의 정치적 효능과 신뢰감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33(4).
- 안병만(1983), 농촌주민의 정치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17권.
- 안병만·김광용·김인철(1992), 「1991년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의 지방주민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아시아재단 보고서.
- 안형기·최병대·강인호. (1999). 친환경 정치행동화: 사회심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의 관점. 「한국행정학회보」 제33권 제4호.
- 유재일. (2006). 한국지방선거의 구조와 동학: 제4회 대전시장선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4집 제2호.
- 이기식. (2000). 이성적 행동이론(TRA)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공무원, 주부 및 대학생들의 재활용 행태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1호.
- 이도수. (2000). 「조직행동론」. 형설출판사.
- 이상용. (2011). 「청소년의 미디어스포츠 수용동기, 관여수준과 스포츠 태도 및 참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철. (2007).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13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제2호.
- 이현우. (2003)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와 후보자 전략. 「2003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차배근. (1992). 「태도변용이론」. 나남.
- 최재완. (2006). 「장애아동 이해 영상자료가 초등학생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규(1983), 「한국대학생의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황아란. (1998). 정당태도와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솔.
- 황규대·박상진·이광희·이철기. (2007). 「조직행동의 이해-통합적 접근법-」. 박영사.
- 황규대·김형식·박상진·송교석·양진환·양훈모·이광희·이철기. (1999). 「조직행위론-조직내 인간의 태도와 행위의 이해-」. 박영사.
- 황재원. (2003).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판단-개인차 요인과 맥락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숙. (2004). 「대전지역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erbach, Joel D. and Walker, Jack L.. (1970).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 Abramson. Paul R.. (1972).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among Black School-children: Two Explan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34(4).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 Allport, Gordon. (1935), *Attitudes. in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Allport, G. W. & Vernon, P. E. & Lindzey, G. (1960). *Study of Values*(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Back, K. W.. (1977). *Back Instructor's Manual to Accompany Social Psychology*(Prepared by Sparks Lunney). John Wiley & Sons inc.
- Brown, M. A. (1976). Value - A Necessary but Neglected Ingredient of Motivation on the Job.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 no. 4.
- Buchanan, B. & Millstone, J. (1979). Public Organization: A Value-Conflict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1. Issue 3.
- Cooper, Terry L.. (2012).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6eds.). San Francisco: Jossey-Bass.
- Easton, D. & Dennis, Jack. (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
- Festinger, Leon.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2eds.).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E. T. & Reckless, Walter C. (1931). *Social psychology*. New York: Longmans, Green.
- Mcguire, W. J.. (1969),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2nd ed.).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Reading, MA: Addison- Wesley.
- Norman, R. M. (1984). *Introduction to Organization Behavior*(2nd eds.).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p. 419.
- Rokeach, Milton.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Gortner, Harold F.. (1994). Values and Ethics, in Terry. L.. Cooper(ed). *Handbook of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Henry, N. (1975).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Kluckhohn, Clyde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 Row, Peterson.

Paige, J. M.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Thompson, Dennis F.. (1987). *Political Ethics and Public Off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하상근(河相勳):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05,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와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관한 추세적 비교연구”(한국정책학회보, 2010) 및 「정책불응의 이해」(대영문화사, 2011) 등이 있다. 전공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이고, 관심분야는 정책불응(관리)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복지정책 등이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skhaa@ulsan.ac.kr).

<논문접수일: 2013. 6. 10 / 심사개시일: 2013. 6. 13 / 심사완료일: 2013. 7. 26>

Abstract

A Study on the Attitude with Value Type in Local Councilor

Ha, Sangkeu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ifference of the three components of attitude with value type in local councilor. And this study is having a theoretical approach and an empirical analysis simultaneously.

First, This study divides the values into five theoretical parts: Objective-Orientation(personal objective, collective objective), Point of Orientation(relationship-oriented, task-oriented), Leadership (tradi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Rationality(procedural rationality, substantive rationality), and Administrative Principle(economic efficiency, social democracy).

Second, To measure attitudes with value type in local councilor, divides the attitudes into three components, such as Cognitive Component, Affective Component, and Behavioral Intention Component.

Key Words: Value Type, Attitude, Cognitive Component, Affective Component, Behavioral Intention Component